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b>보 도 자 료</b> <b>(수정 배포)</b>	2016. 4. 28(목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 과장 김기영 / 사무관 이정호 (Tel. 044-200-2083)
* 엠바고 : 4월 28일(목) 11시 이후 사용			

## 5월 '가정의 달' 을 맞아 국내관광 활성화로 내수진작 기대

- 28일 국무회의에서 5.6일 임시공휴일 지정, 가정의 달 의미를 살린 가족 단위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방안 확정

- ① 임시공휴일 당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가족단위 여행객 KTX 20% 할인
  - ② 4대 고궁·종묘·조선왕릉, 국립과학관·휴양림·청소년수련시설 등 무료 입장
  - ③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프로야구 입장권 50% 할인
  - ④ 전국 240개 지자체·지방공기업, 60여개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을 무료 개방
- \*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포털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

□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5월 '가정의 달'과 여행주간(5.1~14)을 맞아 국민들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고,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.

□ 무엇보다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.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.

○ 이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5.6일을 '재량휴업'으로 지정하고 있어 가급적 근로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나홀의 연휴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반영한 것이다.

- 아울러 정부는 **임시공휴일 당일인 5.6일** 민자 도로를 포함한 **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**하기로 하는 한편,
  - \* 5.6일 0시~24시 동안 고속도로 경유 차량은 **진·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 면제**  
(예시) 5.5일 24시 이전에 유료도로 진입한 차량이 5.6일에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 면제,  
5.6일에 유료도로 진입한 차량이 5.7일 0시 이후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
- KTX·새마을호·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**5.1~5.31일까지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**에 걸쳐 **운임의 20%를 할인**하기로 하였다.
  - \*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여 할인승차권 구매, 인터넷 예매의 경우 일단 정상가격 결제 후,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할인혜택 제공
- 또한, 금번 연휴기간(5.5~5.8) 동안 **4대 고궁·종묘·조선왕릉 및 과학관·휴양림·수목원** 등을 무료 개방하는 하는 한편
  - 지자체·공기업·공공기관의 **운동장·강당** 등 연수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관련 이용 정보를 **문체부 홈페이지\*** 등에 일괄 게시할 예정이다.
    - \* <http://spring.visitkorea.or.kr>
    - ※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실비 차원에서 유료로 개방
  - 특히, 어린이날에는 **태릉 국제스케이트장**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**프로야구 입장권을 50% 할인**하기로 했다.
    - ※ 롯데-두산(잠실), KIA-넥센(고척), 한화-KT(수원), SK-삼성(대구), LG-NC(마산)
- 정부는 금번 임시공휴일과 연휴를 많은 국민이 가족과 함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도 요청하였다.
  - 우선, 중소기업·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

협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

- 또한 자녀들과의 가족단위 국내여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.
  - 연휴기간 중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종사자들도 가급적 국내에서 여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,
  -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,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,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.
-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국내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하여 무료 개방 관광지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각종 국내 여행정보, 관광이벤트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